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 ·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한·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특구 제도 활용」
제26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결과보고

I. 출장개요

- 목 적 : 제26회(2023-1차)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개최 및 참석
- 기 간 : 2023. 5. 24.(수) ~ 5. 26.(금)
- 대상국가 및 방문기간 : 일본 도쿄, 요코하마/ 2박 3일
- 참가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여행자	원장	원장	김일재
	기획조정실	연구위원	이제연
	지방재정경제실	선임연구위원	신두섭
	지방재정경제실	부연구위원	이서희
	기획조정실	다급전문원	탁영지

II. 출장내용

- 프로그램

일자	시간계획	주요내용	비고
1일차 5.24. (수)	07:20	○ 김포공항 국제선 2층 대한항공 카운터(B)	
	09:00~11:10	○ 김포공항 → 하네다공항	KE2101
	11:30~12:30	○ 중식	하네다 공항내
	12:30~13:00	○ 하네다공항 → 호텔(칸데오 롯폰기)	택시이동/ 호텔 짐보관
	13:00~13:30	○ 연구회장 이동	도보/GRIPS 회의실 3C

13:40~14:00	20'	<p style="text-align: center;">[개 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소개 ○ 인사말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코미치 기요타카 (정책연구대학원대학 명예교수특별교수) ■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다카다 히로후미 GRIPS 부학장</p>
14:00~14:40	40'	<p style="text-align: center;">[발 제 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측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목: 기회발전특구 신설을 통한 지역활성화 추진과 과제 	제1세션
14:40~15:20	40'	<p style="text-align: center;">[발 제 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측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제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15:20~15:40	20'	<p style="text-align: center;">[토 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 응답 	
15:40~15:5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ffee Break 	
15:50~16:30	40'	<p style="text-align: center;">[발 제 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측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우치타 코타로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참사관 보좌) ■ 제목: 일본 특구 제도 국가전략특구 및 구조개혁특구의 제도 개요와 활용 사례 	제2세션
16:30~17:10	40'	<p style="text-align: center;">[발 제 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측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혼마 요시타카 (도쿄도 스타트업·국제금융도시전략실 전략추진부 전략사업추진과 특구·규제개혁담당 과장) ■ 제목: 도쿄도의 국가전략특구 대응 	
17:10~17:40	30'	<p style="text-align: center;">[토 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 응답 	
17:40~18:00	20'	<p style="text-align: center;">[폐 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무리 및 기념사진 촬영 	
18:00~18: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찬장 이동 	
18:10~19:30		<p style="text-align: center;">[만 찬 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회 주요 참석자 	
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이동(칸데오 롯폰기) 	

2일 차 5.25. (목)	~09:00	○ 조식	호텔식
	09:30~09:50	○ 호텔 → CLAIR 도쿄 본부 이동	렌트차량 이동
	10:00~11:00	[기관방문] ○ 오카모토 다모쓰(CLAIR 본부 이사장) 예방 - KRILA · CLAIR 공동사업 논의	CLAIR 도쿄 본부
	11:00~12:00	○ CLAIR 도쿄 본부 → 요코하마시	렌트차량 이동
	12:00~13:30	○ 중식	
	13:30~13:50	[현장시찰] ○ 요코하마 시청 신청사 도착	시청 3층 시민라운지
	14:00~14:10	○ 이지치 히데히로(伊地知英弘) 부시장 예방	시청 8층
	14:15~15:00	○ '특구' 개요 설명회 및 QnA	시청 18층
	15:00~15:40	○ 옥상방재 헬기포트 및 면진장치 시찰	시청 31층
	16:00~18:00	○ 호텔로 이동(칸데오 롯폰기)	렌트차량 이동
18:00~19:30	○ 석식	호텔 인근	
3일 차 5.26. (금)	~09:30	○ 조식 및 체크아웃	
	09:30~10:00	○ 호텔 → 하네다공항	택시 이동
	12:25~14:45	○ 하네다공항 → 김포공항	KE2102

○ 주요참석자 명단

[1일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성명	직급 또는 직위 (수행업무)	성명	직급 또는 직위 (수행업무)
김일재	원장 (개회인사)	이서희	부연구위원 (발표)
이제연	기획조정실장 (발표)	탁영지	대외협력팀장 (국제협력담당)
신두섭	지방재정연구실장 (토론)		

[경계인문사회연구원]

성명	직급 또는 직위	성명	직급 또는 직위
홍일표	사무총장 (토론)	김연진	부전문위원
전민선	부전문위원 (실무책임)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성명	직급 또는 직위	성명	직급 또는 직위
요코미치 기요타카	명예교수 (개회인사)	하지로 준	교수 (발표)
다카다 히로후미	부학장 (사회)	하시모토 아이코	국제협력담당

[내각부 지방상생추진사무국]

성명	직급 또는 직위
우치다 코타로	참서관 보좌 (토론)

[도쿄도 스타트업·국제금융도시전략실]

성명	직급 또는 직위
혼마 요시타카	특구·규제개혁담당 과장 (토론)

[2일차]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성명	직급 또는 직위
오카모토 다모쓰	본부 이사장 (2일차 간담회)

[요코하마시]

성명	직급 또는 직위
이지치 히데히로	요코하마시 부시장 (2일차 시찰 시 예방)

※ 기타 :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도쿄본부 관계자 등

○ 주요 활동 내용

[5. 26.(수) : 연구회 개최 및 발표·토론]



개회식

요코미치 기요타카 (정책연구대학원대학 특별교수)



개회식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주제발표 I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제발표 II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종합토론 I



주제발표 III

우치타 코타로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감사관 보좌)



주제발표 IV
혼마 요시타카 (도쿄도 특구·규제개혁담당 과장)



종합토론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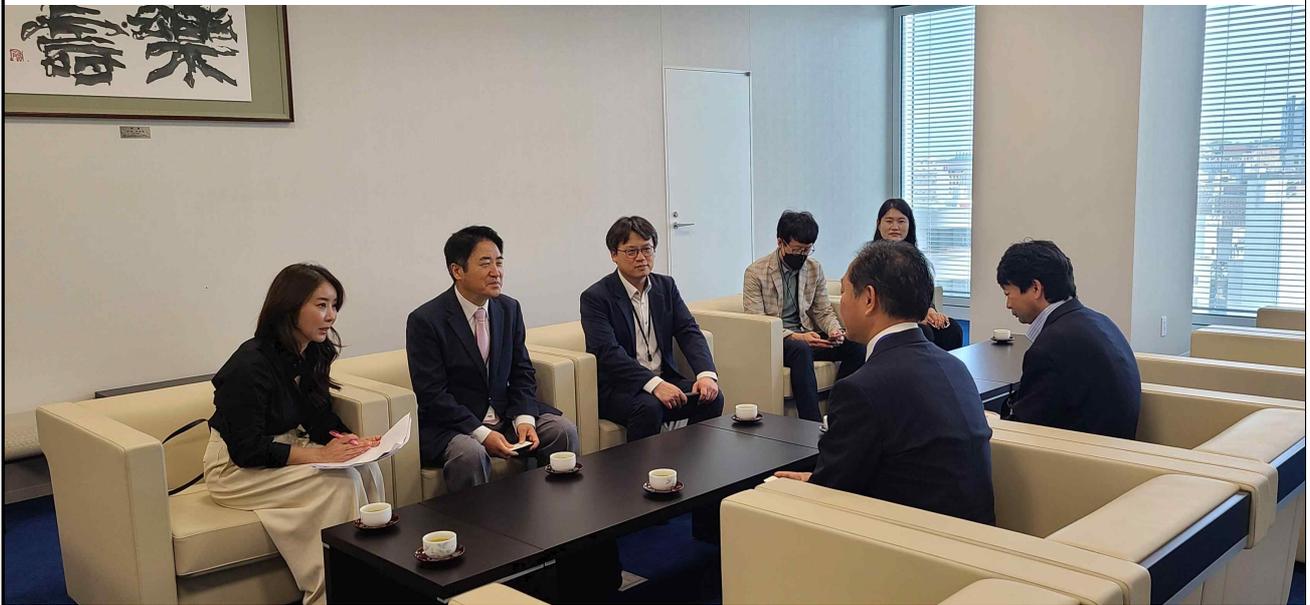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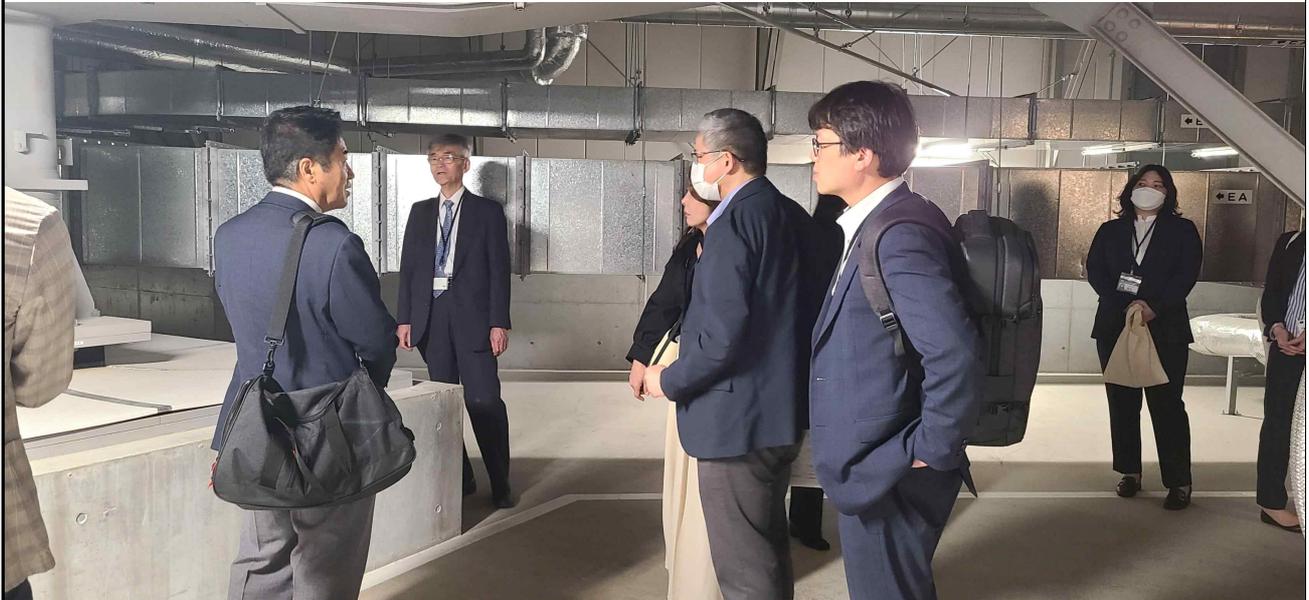
[5. 27.(목) : 회의 및 간담회]



CLAIR 본부 이사장(오카모토 다모쓰) 예방 및 간담회 실시



요코하마시 부시장(이지치 히데히로) 예방 및 간담회



요코하마 '특구' 설명회, 옥상 방재 헬기포트 및 먼진장치 시찰

II. 연구회 토론 내용

[제1세션]

○ 하지로 준 교수

- 일본도 인구감소 관련 다양한 논의와 핵심정책 마련중으로 특구제도가 많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의 특구 지정 및 운영수와 대응이 좋은 사례지만 기회발전특구의 축은 인구감소와 관련한 내용으로, 좀 더 선택과 집중에 중심으로 두는 정책이 중요한 것으로 보임.
- 국가정책인 인구감소문제가 중심에 있고 향후 중앙정부와 자치체간 관계 및 발전 전망이 있어보이며, 인구감소문제는 서울집중인구를 분산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임.
-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요인은 수도권 인구분산인데, 세수감소에 대한 충당 해결방법과 공장이동만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조치방법 및 선이전기업과 향후 이전 기업간 조정문제 등도 해결과제가 될 수 있음.
- 지역마다 특징이 있고 지역만들기 도시계획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연장선상에서, 농촌공간계획은 서울이외의 지역을 커버하는데서 특구제도를 운영하며 규제를 없애는 상황으로 보여짐.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데 주체는 어느쪽인지가 궁금하고, 이에 중앙정부의 개입과 역할은 어느정도인지, 관광에 대한 요소도 지방입장에서 중요한데 보조금이 지원여부와 세제상 혜택 여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함.
- 농촌다움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라는 내용관련, 주민들에 인식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있었을텐데 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할 강력한 조정틀은 무엇인지 궁금함.
- 일본도 육아지원 및 인구감소관련 기업유치를 많이하고 있고, 여성들의 일양육 병행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운영하고 있는데, 기회발전특구제도가 실시하는 우대조치는 무엇이며, 세제혜택도 어떤 차등을 두는지 궁금함.

○ 이서희 부연구위원

- 일부를 제외하고 광역지자체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결국 지방교부세로 추계를 하면, 특구수요를 반영해서 교부를 해야함. 따라서 결국 교부세는 일정비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특정지역에 뺏기는 상황이 되는 구조여서 기회발전특구가 좀더 지방친화적이 되려면, 경쟁구조가 아니라 특별회계쪽이 논의되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입주한 기업과의 차별이 굉장히 중요하여 기존특구의 기업들에게도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특혜를 주는 방법을 연구중임.

○ 이제연 연구위원

- 농촌공간계획 수립주체관련, 한국은 최근 바텀업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기초자치단체 인 시군이 주체가 되나, 지방정부 모든사업에 대한 승인은 아니며 광역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두 보완 및 수정작업이 필요함
- 주민갈등관련은 가장 마지막 단계로 주민갈등을 해소해야 온전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주민갈등을 해소하는 특별한 방법과 틀은 현재 없고,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들에 장기간에 걸쳐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양돈단지의 경우도 40년 이상을 설득과 논의가 필요하였음.

[제2세션]

○ 홍일표 경인사연 사무총장

- 한국 50개 이상의 특구와 다르게 일본은 3개 특구임. 국가주도가 아닌 지역주도가 한국의 포인트이나 일본은 톱타운방식의 국가주도의 국가전략특구제도가 나타나게 된 이유
- 3가지 특구사이의 위계가 있는지, 아니면 각각의 특구가 병존한건지, 3개 특구의 위계와 위상에 대한 설명 요청
- 한국은 규제개혁, 지역 간 균형발전이 목적과 특징인데, 일본은 규제개혁은 중요한 원칙과 방법이 사용되나 지역간 균형발전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것처럼 보이는데 국가전략특구제도내에 지역균형발전 목적이 있는지 설명 요청
- 도쿄도의 사례를 보면 세부 사례들까지 자문회의에서 결정하는것처럼 보이는데, 자문회의의 구역회의의 체계와 국가전략특구의 자문회의의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 요청
- 국가전략특구가 13개 지정돼있는데 앞으로 추가법개정을 거쳐 국가전략특구가 계속 지정이 되는지의 여부 질문
- 특구 및 규제개혁은 한국의 정책목표인데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며, 실제 정부부처들 사이 갈등이 높고, 실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많음. 일본의 경우 갈등이 있는경우 해소법은 무엇이며 갈등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지, 도쿄도의 사례 질문
- 국가전략특구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국가전략특구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특구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인지와 특구제도의 위계와 위상에 대해 부연설명 요청.

○ 신두섭 선임연구위원

- 지방소멸, 저출산, 저출생 등 한국의 접근법은 책임소재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일본은 최근 지방창생 관련 정책관련 소자화(아이가 많고/적음) 정책이 일부 저출산 속도를 줄이는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
- 특구지역은 산업, 경제 포커스이나 일본은 경제, 사회 등 복합적 접근을 하고있으며, 특구 지정과 관련, 권역까지 지정을 하는게 흥미로움.
- 국가전략특구로 넘어오면서 산업거점중심. 목표설정 성과측정 등 한국도 시사점이 있고 유인책 관련, 한국은 다양한 특구지정해서 기업유치, 외자유치 등 재정세계지원책인데, 도쿄의 경우 기업운영차원에서 취득세 공제 등 지원이 보임.
- 이러한 다양한 지역 및 형태의 특구가 있는데 특성을 살려야하고 분야를 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일본의 도쿄다움, 오사카다움이라 부르는데 특색이라 생각하며, 어떻게하면 특색을 발견해서 그 분야를 특화 발전을 시킬것인지. 권역별, 광역별로 나누어 특징들을 유기체적인 관계설정이 중요해보임
- 공공학교 설립해서 민간이 운영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데이터 관련 한국이 많은 관심이 있는데, 중앙과 지방 외 민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 요청
- 인증실적 중 의료분야가 24건으로 상당한데, 의료는 간사이권에서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경쟁구도가 될 수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구는 또한 비수도권에 대한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구도 외 상생할수있는 보완책이 있는지 설명 요청

○ 우치다 코타로 내각부 참사관 보좌

- 일본 법률에 따른 일본의 특구는 3개로 세계우대조치 차원이나 기업유치차원이기도 하지만 주요 특구는 3가지임.
- 국가주도 관련, 3개 특구 지정 시기는 정권교체시기였으며, 오랫동안 자민당에서 민주당, 다시 자민당으로 바뀌면서 여러 정책, 세제, 금융, 성장정책 등 규제개혁정책이 나왔고,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국가주도로 간 것으로 생각함.
- 위계관련, 지방자치단체 특성이 있어 그에 맞게 추진하는게 목적이며, 한국의 특구는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있지만 일본은 국제경제활동 거점을 지정하고 발전시켜 소도시라도 특구로 지정하여 전국단위로 발전시키는데에 목적을 두고있음

- 자문회의, 구역회의 관련, 탑다운은 국가주도가 맞지만 사업제안은 대부분 바텀업으로 올라가며 민간에서 신청한 제안들을 국가 자문회의에서 의견개진을 하는 기능
- 정부지정 국가전략특구는 필요범위내에서 운영하므로 크게 늘지는 않을 듯 하지만 슈퍼시티나 건강특구같은 내용으로 지정은 가능

○ **혼마 요시타카 도쿄도 과장**

- 자문회의 구역 회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민간 사업자들을 포함해서 수차례 회의를 실시하며, 민간 측에서 먼저 제안을 요청해서 의견을 모으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정부가 민간 쪽에 찾아가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경우도 있음
- 규제 완화관련은 성청이 여전히 협의 중인 것도 있고 최종 불발된 것들도 많은데, 특구 제도 자체의 목적이 국제 경쟁력 강화이니 만큼 특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즈니스와 연계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모든 권역이 수용하는 체제임
- 규제 개혁 특구가 시작된 첫 출발점은 규제 개혁 특구 지정 요청들을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으로부터 먼저 제안요청한 것이며, 의견 청취를 해서 수렴을 한 이후에 전국 전개가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했음
- 일본의 국제전략종합특구는 국제전략종합특구와 지역 활성화 종합특구 두 개의 축이 있었고, 국제전략종합특구는 국가 전략 특구와 비슷하여 일본의 경제를 이끄는 경영자 역할을 하는 지역을 구축하자는 취지였는데, 독립돼서 아베 총리 체제 이후 국가 전략 특구로 발전하게 됨

Ⅲ. 오카모토 다모쓰(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본부 이사장) 간담회

○ 오카모토 이사장

- 한일 양국이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있지만, 상호 간의 정책 과제나 문제 의식을 터 놓고 정면에서 논의하고 상대방의 국민들에게 그리고 자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정책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연구에는 항상 공부를 하는 단계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연구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희망함
- 현재 한일 관계는 건설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호 간에 정보 교류를 하고 교류를 더욱더 심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있으며, 내정관계자 회의가 드디어 재개된다는 소식을 들어 한일관계가 더욱 더 전진할 것으로 기대함.
- 일본의 특구제도라고 할지라도 또 한국에서 도입하실 때에는 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상호 간에 각국의 맞춤형 제도를 많이 고민을 했을텐데, 지금 추진중인 상황을 양쪽 실정에 맞게 면밀하게 파악하고 또 이를 도입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측면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함
- 특구제도의 다카다 부총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특구 제도 개혁이 한창 이슈였기 때문에 특구 개혁 팀이 창설 됐었음. 정권이 교체되면서 규제 개혁에 상당히 중점을 두는 분위기에서 각 부처들은 소극적인 자세였고, 규제 개혁을 어떻게 조금씩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법률상의 논의도 있었음. 한 나라에서 두 개의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 헌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했던 기억이 있음.
-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 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이고, 개인적으로 작년 7월에 서울에 방문을 했는데, 코로나로 당시 조금 이동이 제한됐던 분위기에서 해제되는 시기에 첫 방문국을 한국으로 해야겠다 결심을 했고 대면으로 만나 뵙고 교류를 재개시킬 수 있는 신호로 한국을 방문했음. 이때 많은 관계자분들과 의견 교환을 했고 교류가 이렇게 재개가 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함.
- 개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돼서 정말 기쁘고, 경제 협력도 한다라고 하지만 양국 정상은 양국 간의 이러한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교류가 재개가 된 분위기속에서 정부 차원의 회의들을 전부 다 가동을 하기 시작한 듯 함.
- 한일 내정 관계자 교류 회의도 총무성과 한국의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회의인데 올해 가을에 개최가 되며, 그 밖에 한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하는 시도지사 회의

가 있음.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었는데 다음은 일본 차례로 일본의 후지산 있는 사키스에서 야마나시현에서 개최를 할 수가 있게 됨.

- 또한 한중일 3국 회의도 코로나 때문에 부분이 중단이 됐었지만, 대면 회의로 전환이 되면서 또 올해 10월달에 같은 야마나시 현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한 자리에서 회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기회가 되신다면 원장님께서도 꼭 참석해 주시고 의견 주시기를 요청

○ 김일재 원장

- 연구원과 CLAIR, GRIPS 이 3자간의 협력관계처럼 국제협력이 이렇게 잘 되고 서로 도움을 많이 받는 국제행사가 많지 않았는데 3자간의 공동 논의 토론 협력관계가 그동안의 오랜 공식생활동안 어떤 국제협력관계보다도 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CLAIR와 GRIPS와 KRILA 간의 협력 관계가 한국의 다른 중앙부처의 국가정책연구원들과의 협력 관계도 더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와 시그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함.
- 이번에는 특히 특구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특구에 관한 정책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의 지방에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국가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시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로, 일본 특구의 히스토리도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사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IV. 요코하마 시청 특구 설명회

○ 경제국

- 요코하마 시는 매립 공사를 시작한 지 40년여 년이 지났고, LG연구소, 삼성 연구소 등을 비롯하여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음. 그 밖에도 한국인 스타트업 관련된 회사들, 대기업 엔지니어, 외국인들이 많이 입주하는 주거 단지로 거듭나고 있음.
- 일본의 국가 전략 특구의 핵심은 대담한 규제 제도 완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음. 국가 전략 특구가 창설된 배경에는 세계에서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고, 기존에 있었던 안방 규제의 부분을 해결하고 특례 조치 개혁 등을 통해서 안방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했음. 국가 전략 특구 13군데와 국가 인정을 받은 사업 건수가 400개가 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 전략 특구 제도에서 실현된 주요 규제개혁 성과를 보면 128개의 항목에서 진행이 되고 있음.
- 요코하마시의 대응 사례로는 국가 전략 특구 제도가 시작을 한 2014년에 시청 내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특구 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먼저 시작했고, 국가 특정 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사업은 6개로 추려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공원 내 어린이집을 만든 사례와 여기에 생긴 주택 정비 사업, 미래 기술 실증 원스톱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음.
- 첫 번째로 공원 내에 어린이집을 개설한 사례로, 공원 내의 어린이집 설치는 그동안 규제로 인해서 불가능했지만 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시설을 공원 내에 설치할 수가 있게 되었음. 행정 차원에서 이 특례 조치를 평가했을 때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어린이집이 들어옴으로 인해 고령자분들과 어린 세대들의 만남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 차원에서도 지방 활성화에 대단히 유용했던 특구 사례라고 생각
- 다음은 근 미래 기술 실증 원스톱 센터로, 자율주행 실증 실험을 할 수 있는 도시가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것을 요코하마에서 운전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 특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 내부 사정을 보면 2019년부터 사업 인정 건수가 전혀 없고, 앞서 6개 사업 인정된 사례의 경우, 대부분이 시에서 건의를 하여 민간 측에서 오피를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된 것으로 대부분 기업 측으로부터 상담을 먼저 세우는 건수는 적은 상황임. 기대하고 있는 바는 입주 기업 가운데 연구 개발을 하고있는 연구소 거점도 이제 막 생기기 시작을 했고, 스타트업 관련된 거점들도 늘어남에 따라서 앞으로 민간 측에서 오피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음.

○ 도심재생부

- 주택정비특구 사업이 시작된 배경은 요코하마역 북쪽에 트리아 지구라는 곳에 다국적 기업이 많이 입주한 상황으로,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거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요코하마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의 주택 정비 사업 구역에 있으며 또 다른 지구와도 굉장히 근접해 있음. 이 주변을 정비하여 분양한 결과 대단히 평가가 좋았고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이 특례에 따라서 주택 용적률이 많이 완화가 됨. 통상적으로 봤을 때 도시재생 특별지구 제도의 용적률 완화가 상업지구의 경우는 500%였지만 완화 후에 170%가 더 추가되어 주택 용적률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되었음
- 단순히 고층 빌딩으로 복합시설을 들인 것이 아니라 특구 제도를 활용하여 빌딩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주 대응을 위하여 건물 내 어린이집, 의료단지 등에도 외국어 응대가 가능하도록 컨시어즈 시스템을 도입하여 언어적인 부분을 해결함. 그리고 43층에는 글로벌 스카이 코머스라는 공간이 있어, 주거 시설 맨 위에 회의실이 나 라운지 공간을 확보하여 거주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곳으로 활용하고 있음.

V. 시사점 및 특이사항

- 「한·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특구 제도 활용」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양국의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및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의 기술 변혁 속도가 급격해지면서 한국에서는 기술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유연한 입법방식과 규제자유특구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시행해왔고, 최근에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수단으로 지방 주도의 한국형 지역 신성장 전략인 ' 기회발전특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 설명
- 일본도 규제개혁을 위한 지역산업의 부흥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14년 '국가전략특구법' 제정 이후, 현재 13개 구역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첨단산업, 관광, 의료 등 많은 분야에서 여러 성과들을 공유
- 양국의 특구 제도는 운영 방식과 지원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상호 담론을 나누며 실질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특구 제도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함

VI.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장면 사진 등
 - 학술대회 발표자료집